

#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애착문제 유아 가족을 중심으로

노 남 숙(명지대 강사) · 한 유 진(명지대 교수)

## I. 문제제기 및 선행연구 고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오늘날의 가정은 개인주의 가치관의 팽배, 부부 역할의 변화, 부모의 역할 혼란 등으로 많은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정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정서행동 장애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정부가 12개 시·도의 94개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했을 때도 네 명 중 한 명이 정서행동 증세에 해당되었고, 200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생 4,107 명을 조사한 결과 네 명 중 한 명이 역시 이 같은 장애의 징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인스닷컴, 2009. 3. 4).

애착은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할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으로, 초기 양육자와의 경험이 이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유아-양육자의 애착을 통해 유아의 존재 의미가 부여된다고 할 만 큼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Tyson, Emde, Gulenson, & Osofsk, 1985). 국내연구에서도 부모-영유아 관계성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며 이들의 관계성이 궁극적으로 영유아 정신건강과 연결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이경숙, 2008; 최은아 · 김미정, 2006). 또한 애착문제/장애 아동과 형제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작동모델에 관한 연구(이경숙 · 강인선 · 신의진, 2004)는 어머니의 내적 표상 유형과 비율이 모두 부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형제들의 위험요소로 작용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애착문제유아와 부모 및 그들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관심과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나, 부모와 가족 등 주변인과 관계성의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심층적인 연구접근은 전무하였다.

애착문제 유아의 특성을 애착표상, 정서/행동 특성 및 가족지각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표상은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애착인물에 대한 표상(채진영, 2009)으로 양육자와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애착인물에 대해 부정적 애착표상을 만들고 이에 양육자를 신뢰하지 못한다(장휘숙, 1997; 정옥분, 2006). 둘째 정서 및 행동 특성으로 국외의 경우 애착문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공격성 및 다양한 품행문제를 가진다는 보고(Lyons-Ruth et al., 1993)가 있다. 또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의 경우 불신, 분노, 공격, 무감각 등의 특징을 보이며(Bretherton & Munholland, 1999) 타인과의 관계에서 낮은 상황의 경우 극도의 긴장과 불안 및 분노 반응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Solomon & Gorge, 1999). 국내 연구에서도 애착문제 유아의

외현적 특성으로 짜증과 신경질, 부정적인 정서와 산만함, 과잉행동, 강박적인 행동 등 다양한 문제행동 등을 보인다는 부모들의 보고가 있었다(최은아·김미정, 2006). 셋째 가족지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실제 애착문제는 유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안에서의 관계의 질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 가족응집성과 표상은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이에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Glavin & Brommel, 1986)

애착문제 유아 가족의 특성을 애착문제와 가족의 특성 및 애착문제 유아 어머니의 특성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문제를 보이는 유아의 어머니의 경우 스트레스, 우울, 탈진, 불안이 유아의 애착문제 행동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관계 갈등으로 인해 외부의 정서적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모 효능감의 감소로 양육스트레스가 많아져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나타나게 된다(신숙재, 1997). 둘째, 애착문제 유아 어머니 자신의 특성으로, 자아분화는 초기 안정적인 애착 과정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정신내적인 개념과 대인관계적 개념이다. 이 대인관계 능력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부모와의 애착유형과 자아분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밝혀졌다(이운기, 2005). 또 대인 성인애착의 경우 어머니 애착의 질적인 특성 측면에서 관계 질의 중요성을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대인애착불안과 대인애착회피의 두 차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또한 가족기능 지각은 가족원들 간의 상호작용 스타일을 통해 나타나는 가족원 각자의 가족기능에 대한 인식이다.

이제까지 애착 연구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어머니 자신의 애착 관계 질과 관련 있는 자아분화, 대인애착 지각 및 가족기능 지각에 대하여 연구한 예가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문제 유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어머니의 애착의 질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구성 시 유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치료에 의뢰된 애착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의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 적절하지 못한 부정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이는 유아의 애착관련 문제행동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선우현, 2007; 송영혜·서귀남, 2002). 이에 부모도 유아와 함께 치료에 참여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자 부모놀이치료, 부모-자녀 놀이치료를 실시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이 줄어들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송영혜·서귀남, 2002; 최영희, 2006; Athanasiou & Gunning, 1999)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가족치료에 놀이치료를 결합한 가족놀이치료의 선행연구 중 가족치료 측면에서 놀이를 통한 가족놀이치료 연구는 소수였으며 국외 연구(Baggerly & Exum, 2008)의 경우 가족놀이치료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연구 대상은 학습장애 아동의 가족, 정서·행동 장애아동 가족, 재혼 가족 등으로 개별 가족치료를 진행(선우현, 2006, 2007b; 김유숙, 2006)하였고, 유일하게 이승희(2006)의 연구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아동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집단 가족놀이치료를 하였다.

집단치료로서 집단가족놀이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집단발달과정 및 치료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며(Sheidinger, 1974), 집단발달과정 및 치료요인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며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후경, 2001). 이에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치료요인이나 집단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의 예비실시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집단발달 과정 및 치료요인을 설명,

애착문제 가족의 심리적 문제를 다룰 때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구체적인 치료목표와 기법 수정에 적용하여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가지도록 한다.

예술매체 접근의 가족놀이 활동의 비언어적 접근을 통해 애착문제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애착문제 유아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접근치료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 특히 인형은 은유적 이미지로서 인형이 말로 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어린 아동들을 위한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으로서 역할을 한다(Gendler, 1986).

애착관련 선행연구 중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조한 경우(박명화, 2005; 우복레, 2003; 장미자, 1998)가 있었지만 실제 애착치료 프로그램 중 어머니의 정서를 지원해주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준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문제의 특성상 어머니 자신의 문제와 양육의 어려움, 자녀의 기질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관계의 문제이므로 애착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어머니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문제 유아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인형을 이용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애착 증진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애착문제 유아 자신의 정서/행동 및 가족지각(응집성, 가족표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애착문제 유아 어머니의 자아, 대인관계 및 가족기능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애착문제 유아-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의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집단 발달 단계별 애착문제 유아와 어머니의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 대상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로 가정생활과 어린이집 생활에서 ‘애착 문제’를 호소하고 양육사에서 병리적 양육의 증거가 보이며,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만 4~5세의 유아와 그들의 가족이다. 상담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아동발달 전문가에게 ‘애착문제’로 상담을 의뢰한 부모들 중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참가의사를 밝힌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애착문제 유아 가족 16쌍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 연령을 만 4~5세 유아로 선택한 이유는 예술매체인 인형을 이용한 가족놀이치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정서 표현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다양하고 이때 정서에 대한 개입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어머니가 평정한 Randolph 애착점수가

50 ~60점 인 경우 애착문제가 있는 유아로 정의하였다. 선정된 가족 중 여덟 가족들은 실험집단에, 나머지 여덟 가족들은 통제집단에 무선 배치하였다. 사전 검사에서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유아들의 동질성이 검증되었기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서 실험집단은 애착문제 유아 8명과 어머니 8명, 통제집단은 애착문제 유아 8명과 어머니 8명이며 실험집단은 주 2회 총 12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집단발달과정 특성상 초기단계인 모 정서강화 프로그램에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실험집단 어머니 8명). 전환단계부터 종결단계의 인형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유아-어머니 참여를 기본으로 하며 그 외에 형제자매가 참여하였고 아버지가 가족초대의 날과 종결파티에 참여하였다(실험집단 총 가족 23명).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전 회기는 녹화를 하였고, 전 회기 행동관찰을 기록하였다.

## 2. 사전, 사후 검사

### 1) 유아 대상

#### (1) 테디 곰의 소풍 (Teddy Bears' Picnic: TBP) 검사

유아의 애착과 관계 측면에서 정서 및 행동문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ueller(1996)가 개발한 테디 곰의 소풍(Teddy Bears' Picnic: TBP) 이야기 줄거리를 송영혜 외(200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Mueller(1996)가 만든 부호화를 통한 점수 체계를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 전문가 3명과 함께 수정하여 애착문제특성과 연관되는 정서, 행동의 2영역으로 분류하고 다시 4개의 세부영역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기존의 부호 중 일부를 이용하여 점수화 하였다. 각 유아별로 긍정적 정서/행동, 부정적 정서/행동 관련 9개의 에피소드 각각에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으로 계산하여 총합을 구하였다. 척도의 평가자간 일치도는 .84~.90으로 나타났다.

#### (2) 가족체계(Family System Test: FAST) 검사

유아가 가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Gehring(1993)가 고안한 가족체계검사(FAST)를 송영혜 외(200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FAST 채점은 산술적, 범주적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인식하는 가족 지각 측면에서 가족관계 변화를 보기위해 응집성의 질적인 평가인 범주적 평가만을 적용하였다. 가족 내의 응집력은 낮음, 중간, 높음 이라는 3개의 범주로 분류한다. 또한 구조화된 인터뷰 기법을 이용하여 가족표상 중에서 현재의 가족표상과 갈등상황의 가족 표상에 대하여 인형이미지를 활용한 면접을 통하여 검사자가 기술하였다.

#### (3) Randolph 애착장애 척도(RADQ)

5~18세 아동들의 애착장애를 변별하기 위해 Randolph가 개발한 척도의 제 3판 개정된 것을 이미애(2004)가 번안,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채점은 30개 문항의 각 평정 점수들을 합산한 점수에서 30점을 뺀 것이 총점이며 이것이 아동의 애착장애 점수이다. 교사와 어머니를 대상으

로 유아의 애착장애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선행연구(Randolph, 2000)에서 제시한 대로 애착장애 점수가 50~60점인 경우 애착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a는 .83이었다.

## 2) 어머니 대상

### (1) 자아 분화 척도

어머니의 자아 지각 측면에서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척도를 사용,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한 이운기(2005)의 수정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점수가 높으면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6문항, 가족투사 5문항, 정서적 단절 4문항, 가족퇴행 8문항 등 총 23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의 분화수준이 높으며 가족투사 과정이 적으며, 정서적 단절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적으며, 가족퇴행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퇴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a는 .87 이었다.

### (2) 친밀관계 경험검사(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R: ECR-R) 검사

대인성인애착의 질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어머니의 대인관계 지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친밀관계 경험검사(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R; ECR-R)를 번안한 김성현(2004)의 친밀관계 경험검사(ECR-R)를 사용하였다. 총 36개 문항으로 7점의 Likert식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할 수 있고, 검사는 36점에서 252점의 범위를 갖는다. 대인애착불안 하위척도 18문항과 대인애착회피 하위척도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a는 .84였다.

### (3) 가족기능 척도(ICPS Family Functioning Scales: ICPS-FFS)

가족기능을 지각함으로서 가족 내의 상호작용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 ICPS 가족기능척도(Noller, Seth-Smith, Bouma, & Schweutzer, 1992)를 사용하였다. 이는 6점 척도 총 30문항으로, 친밀감 12문항, 갈등 10문항, 양육방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양육방식도 민주적이며 독립성을 보장함을 의미한다. 갈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간의 여러 어려움과 오해가 많음을 의미한다. ICPS-FFS의 Cronbach's a는 친밀감, 갈등, 양육방식에서 각각 .91, .62, .75였다.

## 3) 유아-어머니 대상

### (1) MIM(Marschak Interaction Method Rating System) 평정 척도

MIM 평가 과정 중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행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O'conner(2001)이 개발하고 성영혜(2004)가 번안한 MIM 평정척도(Marschak Interaction Method Rating System)를 사용하였다. 구조(6문항), 도전(6문항), 개입(9문항), 양육(10문항)의 네 가지 차원별 상호작용의 질에 대한 점수를 측정하였다.

MIM 관찰은 평가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아동심리치

료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놀이치료 수련자 3명과 연구자 본인을 평가자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본 척도는 ‘아주 부적절’ 0점, ‘조금 적절’ 1점, ‘평균’ 2점, ‘우수함’ 3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평가자간 일치도는 .87~.95 로 나타났다.

## (2) 유아-어머니 대상: Marschak 행동 평정 척도

Marschak 상호작용 평가 과정 동안 관찰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하여 McKay, Pickens와 Stewart(1996)가 개발하고 박랑규(1999)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 영역 6개 항목(얼굴표정/정서, 언어화의 질, 접근/신체 정향, 반응성, 응시고착/협오, 지도를 제공하는 경향), 자녀 상호작용 행동 영역 7개 항목(얼굴표정/정서, 언어화의 질, 접근/신체 정향, 반응성, 응시고착/협오, 지도를 받아들이는 경향, 과제 집중), 유아-어머니 2인 쌍의 상호작용 행동 영역 3개 항목(사회적 몰입의 정도, 통제의 균형, 전반적 상호작용의 질) 총 16개 항목을 5점 척도로 평정하고 세 영역 점수를 합하여 전체 상호작용 질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였다.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장면을 촬영 한 비디오테이프를 보면서 사전·사후 관찰은 본 연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아동심리치료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놀이치료 수련자 3명과 연구자 본인을 평가자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본 척도는 ‘아주 부적절’ 0점, ‘조금 적절’ 1점, ‘평균’ 2점, ‘우수함’ 3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평가자간 일치도는 .88~.94 로 나타났다.

회기 중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4명이 매회 세션이 끝난 후 주체별 상호작용 행동평가(Marschak 행동 평정 척도)로 유아-어머니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한 내용을 분석, 관찰 항목들에 대해 논의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회기별 평균 점수로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 3. 프로그램의 구성

### 1)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구성

프로그램 예비 실시 후 프로그램 참여자의 피드백 및 집단의 발달과정에 대하여 가족놀이치료 전문가 1인, 표현예술치료 전문가 1인, 심리치료전공 교수 1인 총 3인과 함께 의논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 하였고 본 프로그램 실시 전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Yalom(1995)의 집단발달 단계(형성단계, 형성단계 이후의 단계, 종결단계)인 3단계를 기본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단계, 전환단계, 실행단계, 종결단계의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모 정서 강화 프로그램과 인형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에 추후 지지집단 모임이 이루어졌다.

모 정서 강화 프로그램인 1~3회기는 집단발달 과정상 전체 프로그램에서 초기단계에 해당하며 목표는 소극적 참여와 의존성을 탈피하고 의미추구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징적으로 모 정서 강화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기가 본 프로그램의 10회기에 진행되었다. 애착문제 유아 어머니들에게 심리적 지지의 지속적인 제공 및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응집력과 자기개방을 공유해감으로써 종결단계의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기본 토대를 다지는 회기이다.

인형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의 주된 부분으로서 전환단계와 실행단계로 구성

된다. 인형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집단발달과정상 전환단계(4~6회기)와 실행단계(7~9회기), 종결단계(11~12회기)로 구성되었다. 전환단계는 4~6회기로써 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목표는 집단 내의 갈등과 저항을 다루어 주고 응집력을 촉진해주는 것이다. 실행단계는 7~9회기로써 본격적인 인형 가족놀이치료가 이루어지며 목표는 구성원들이 자기 개방과 감정의 표출을 통해 감정을 서로 공유하며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종결단계로서 11~12회기로써 회피와 아쉬움을 경험하고 통합이 일어나는 시기로 이 단계의 목표는 변화와 통찰력을 획득하고, 프로그램 동안의 경험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통합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램은 매 회기 위밍업, 본 활동, 이완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은 다음 <표 1>에 제시한다.

<표 1>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단 계	회 기	위밍업	내용(본 활동)	마무리	목표	준비물
초 기 단 계	1	공놀이를 통한 친밀감 공유/소개	오리엔테이션 1. 부모교육: 애착의 중요성 2. '나와 아이와의 관계 생각해보기'-이미지 플라쥬	활동 피드백 나누기	라포형성 및 동기 유발	애착비디오, 공, 플라쥬 준비물, 워크시트지
	2	음악과 함께 하는 명상	1. 부모교육: '자녀와 상호작용 잘하는 적극적 부모 되기' 2. '우리 가족 이미지 점검하기'-나 상징하는 피겨 놓기/가족 상징 피겨 놓기	활동 피드백 나누기	우리가족 이미지 점검	4절도화지, 다양한 종류의 피겨류, 워크시트지
	3	손잡고 서로의 눈 바라보기	1. 부모교육: '적극적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 Point' 2. 나의 감정 건강하게 표현해내기 (협동화 작업)	활동 피드백 나누기	모의 유아기 애착경험통찰 및 유아 양육관련 점검	음악 CD, 물감, 아교, 크레파스, 파스텔, 물휴지, 대형도화지, 워크시트지
전 환 단 계	4	엄마와 유아의 손놀이	오리엔테이션 - 가족놀이치료 소개 - 집단원들의 약속 함께 정하기 본활동: 인형과 만나는 첫 시간 인형을 통한 상호교류(The Ross Puppet)	활동 피드백 나누기	- 가족놀이치료 소개 - 치료과정 규칙 제시 - 라포 형성	다양한 인형들
	5	엄마와 유아의 발놀이	가족놀이가게도	활동 피드백 나누기	가족의 공동 목표/문제탐구	비닐봉지, 다양한 인형류, 도화지, 연필
	6	엄마와 유아의 꼭두각시 인형 놀이	퍼펫 인형 문장 완성 검사 놀이	활동 피드백 나누기	치료자와 가족과의 상호작용 가족모습 인식	인형류, 음악 CD, 필기도구, 워크시트지
실 행 단 계	인형 가족 놀이 치료	- 함께 하는 숲속의 나무 - 외계인 초상화 그리기	* 가족 초대의 날 우리 가족 퍼펫 인형 쇼! 아빠와 함께하는 외계인 초상화 그리기	활동 피드백 나누기	가족관심사와 가족의 감정을 인형으로 표현	음악CD, 흰 종이, 크레파스, 인형, 인형극 무대

<표 1> 연결

단 계	회 기	위명업	내용(본 활동)	마무리	목표	준비물
실 행 단 계	8	- 난장이, 거인놀이 - 풍선놀이	우리 가족을 나타내는 인형 만들기	활동 피드백 나누기	함께 공유하는 인형 만들기 활동을 통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 증진	풍선, 다양한 종류의 천류, 종이봉투, 비닐봉지
	9	- 손가락, 손바닥, 손등 모래놀이 -모래성놀이	우리 가족 모래 놀이 작품 만들기	활동 피드백 나누기	안전한 올다리로서 가족이미지화 하기	모래, 피겨류, 파란 도화지
모정 서강 화	10	지금 하고 싶은 것들 이야기하기	1. 부모교육 4탄 : ‘보살핌’ 강의 듣기 보살핌제공 관련 워크시트지 함께하기. 2. 나 자신을 보살피기 위한 활동하기 상품권 증정식	활동 피드백 나누기	정서지지 프로그램 관련토의 및 양육 관련 자신감 공유	풍선, 로션 물휴지, 편지지, 과자, 음료수, 도서상품권
종 결 단 계	11	- 가족조각 만들기 : ‘살아있는 가족초상화’ - 조각가가 되어	나의 분신인형 만들기	활동 피드백 나누기	창조적 놀이 활동을 통한 건강한 가족 구축.	스티로폼공, 손수건, 부직포, 스티커, 털실, 인형눈알, 악세 서리류, 집착제
	12	- 사랑의 쓱쓱 맛사지 - 애정 쓱쓱 요리대행진	* 가족과 함께 하는 종결파티! 선물 증정 및 수료증 배부 가족이 함께 하는 소원 목록 작성하기 가족 인터뷰하기	활동 피드백 나누기	가족의 긍정적 이미지 내면화 작업하기	다양한 천류, 칼라 솜공, 인형, 색종이, 과자, 음료수, 수료증, 선물

#### 4. 자료분석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초통계분석과 비모수 분석인 맨 휘트니 (Mann-Whitney U) 검증과 윌콕슨의 순위합(Wilcoxon rank sum 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료 과정상의 애착문제 어머니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치료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프로그램 보고서, 매 회기별 작성된 워크시트지, 활동 후 피드백 일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의 프로그램 관찰일지)와 비디오 녹화한 내용을 축어록을 작성하여 유아-어머니의 반응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특히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집단 발달 단계별로 치료적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범주화 작업 및 내용 분석을 위해 아동가족학 박사이며 놀이치료전문가로 상담현장에 근무하는 치료사 1인의 도움을 받아 분석이 이루어졌다.



### Ⅲ. 연구결과

#### 1.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유아의 변화

##### 1) 유아의 정서 및 행동 표현 비교

프로그램 사전검사 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정서 및 행동 표현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맨 휘트니(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 사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아의 정서 및 행동 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든 하위영역에 서로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표 2> 참조).

<표 2> 프로그램 사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아 정서 및 행동 표현 차이

구분	하위영역	집단	N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 U	Z
긍정적 정서 및 행동표현	정서	실험집단	8	8.00	64.00	28	- .43
		통제집단	8	9.00	72.00		
	행동	실험집단	8	9.81	78.50	21.50	-1.13
		통제집단	8	7.19	57.50		
전체	실험집단	8	8.81	70.50	29.50	- .27	
	통제집단	8	8.19	65.50			
부정적 정서 및 행동표현	정서	실험집단	8	10.06	80.50	19.50	-1.33
		통제집단	8	6.94	55.50		
	행동	실험집단	8	9.88	79.00	21.00	-1.18
		통제집단	8	7.13	57.00		
전체	실험집단	8	9.69	77.50	22.50	-1.01	
	통제집단	8	7.31	58.50			

실험 집단 유아의 정서 및 행동 표현의 변화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실시 후 전체 부정적 정서 및 행동 표현( $Z=-2.25, p<.05$ )이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부정적 정서 및 행동 표현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하위영역인 부정적 정서 표현( $Z=-2.11, p<.05$ )이 유의하게 낮아져 부정적 정서 표현이 감소하였다. 반면, 통제집단 유아에서도 부정적 정서 표현( $Z=-2.12, p<.05$ )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긍정적 정서 표현( $Z=-2.21, p<.05$ )이 유의하게 낮아져 이는 긍정적 정서표현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표 3> 참조).

<표 3> 프로그램 사전·사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아 정서 및 행동 표현 차이

구분	하위 영역	집단 구분	사전	사후	N	음의순위		양의순위		Z	
			M (SD)	M (SD)		평균 순위	순위합	N	평균 순위		순위합
긍정적 정서 및 행동 표현	정서	실험 집단	2.63 (1.19)	1.38 (2.00)	4	3.38	13.50	1	1.50	1.50	-1.63
		통제 집단	3.63 (2.77)	0.88 (0.84)	6	3.50	21.00	0	0.00	0.00	-2.21*
	행동	실험 집단	2.63 (1.51)	3.38 (0.92)	2	2.00	4.00	4	4.25	17.00	-1.38
		통제 집단	1.75 (1.17)	2.38 (1.41)	2	2.50	5.00	4	4.00	16.00	-1.19
	전체	실험 집단	5.26 (1.91)	4.75 (2.44)	5	4.40	22.00	3	4.67	14.00	-0.57
		통제 집단	5.38 (3.20)	3.25 (1.83)	5	3.90	19.50	1	1.50	1.50	-1.90
부정적 정서 및 행동 표현	정서	실험 집단	4.88 (2.36)	2.38 (1.30)	7	4.71	33.00	1	3.00	3.00	-2.11*
		통제 집단	4.13 (2.17)	2.00 (1.77)	6	4.42	26.50	1	1.50	1.50	-2.12*
	행동	실험 집단	2.75 (2.05)	2.88 (2.10)	4	2.63	10.50	2	5.25	10.50	0.00
		통제 집단	1.88 (2.48)	3.75 (5.01)	2	5.75	11.50	6	4.08	24.50	-0.91
	전체	실험 집단	7.63 (3.54)	5.25 (2.38)	7	4.86	34.00	1	2.00	2.00	-2.25*
		통제 집단	6.00 (3.12)	5.75 (4.71)	5	4.60	23.00	3	4.08	24.50	-0.71

\*p<.05

## 2) 유아의 가족지각(응집성, 가족표상) 비교

실험집단 유아의 가족 지각 중 가족 응집성은 사전 ‘낮거나 중간 범주’에서 사후 ‘높은 범주’로 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또 가족 표상은 사전 ‘회피, 무반응, 부정적인 모습’에서 사후 ‘개방적, 긍정적인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갈등표상과 관련된 유아의 면접 결과 사전에는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후에는 구체적으로 유아와 갈등관계가 있는 인물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 2.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어머니의 자아분화, 대인관계 지각 및 가족기능 지각 비교

실험집단 어머니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후 전체 어머니의 자아분화( $Z=-2.52,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영역별로 가족투사 영역( $Z=-2.52, p<.05$ ), 가족퇴행 영역( $Z=-2.54,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통제집단 어머니의 경우 가족투사 영역( $Z=-2.37, p<.05$ )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실험집단 어머니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후 대인관계 회피( $Z=-2.31, p<.05$ )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으나 통제 집단 어머니의 경우는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가족기능 지각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어머니 모두에서 사전-사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3.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유아-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

### 1) 차원별 상호작용행동(MIM) 비교 및 주체별 상호작용행동(Marschak) 비교

실험집단 유아-어머니의 경우 차원별 상호작용행동(MIM)은 프로그램 실시 후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Z=-2.52,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부영역인 구조( $Z=-2.52, P<.05$ ), 도전( $Z=-2.55, p<.05$ ), 개입( $Z=-2.52, p<.05$ ), 양육( $Z=-2.52,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집단 유아-어머니의 경우 주체별 상호작용행동(Marschak)은 프로그램 실시 후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Z=-2.52,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부영역인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Z=-2.54, P<.05$ ), 유아의 상호작용행동( $Z=-2.54, p<.05$ ), 유아-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Z=-2.54,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프로그램 실시과정 중 유아-어머니의 주체별 상호작용행동(Marschak) 비교

실험집단 유아-어머니의 회기별 상호작용 행동(Marschak)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유아, 어머니, 유아-어머니 2인쌍 모두 초기의 점수에 비하여 종결의 점수가 매우 높아짐을 보여 본 프로그램이 유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증진에 도움이 됨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실시 과정 중 단계별 유아-어머니의 주체별 상호작용행동(Marschak)을 집단발달단계중 전환단계, 실행단계, 종결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들이 각 회기 프로그램이 끝난 후 비디오로 촬영된 프로그램 회기 중 유아, 어머니, 유아-어머니 2인 쌍의 상호작용 행동을 집단발달단계별에 따른 상호작용 행동영역 (얼굴표정/정서, 언어화의 질, 접근/신체정향, 반응성, 응시고착/협오, 지도를 받아들이는 경향, 과제집중)의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 4.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 나타난 집단발달단계별 애착 문제 유아와 어머니의 변화과정 분석

실험집단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단계별 변화과정을 Yalom(1995)의 치료요인으로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치료요인은 희망의 고취, 보편성, 조인(치료자, 집단참여자), 이타주의, 가족이해(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 사회화 기술, 동일시(치료자, 참여자), 대인관계학습, 집단 응집력, 정화, 실존적 인자의 13가지로 정의된다.

유아, 어머니의 인터뷰를 통하여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유아의 경우 전환단계에서는 집단응집력을 통해 서로 수용하고 도우며 의미 있는 단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실행단계에서는 사회화 기술을 익히고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인 ‘잘 들어주기, 긍정적인 칭찬하기’ 등 다른 유아들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종결단계에서는 정화가 나타났다. 집단 내 집단원들이 깊이 관계하고 터놓으면서 자신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의 경우 초기단계에서 보편성을 통해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만 힘들다고 느꼈던 감정들을 풀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집단응집력, 보편성, 자기 이해의 3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전환단계에서는 집단응집력, 보편성, 자기 이해, 사회화 기술, 가족 이해의 5가지 요인이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화 기술과 가족이해는 어머니가 시작단계에서 경험한 의사소통기술과 정서적 지지에 기초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행단계에서는 자기 이해, 희망의 고취, 실존적 요인들, 사회적 기술의 5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어머니들이 집단 내에서 강력한 응집력과 자기 개방이 일어나면서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며, 실존적 요인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음을 배우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종결단계에서는 집단응집력, 보편성, 자기 이해, 정화, 이타주의, 희망의 고취, 실존적 요인의 7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애착문제유아가족을 위한 인형을 이용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애착 문제 유아, 어머니 및 유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프로그램이 유아-어머니의 관계 질의 측면에서 애착증진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 어머니, 유아-어머니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유아의 정서 및 행동 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TBP 검사 결과,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부정적 정서 및 행동 표현이 감소하였고 하위영역인 부정적 정서 표현이 감소하였다. 실험집단 유아는 부정적 영역에서만 변화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자아개념 연구에서 부정적 자아개념의 변화가 먼저 온 후에 긍정적 자아개념의 변화가 있다(신정숙, 2007)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유아의 가족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FAST 검사의 범주적 평가 결과, 유아의 가족 지각 중 가족응집성이 정

적으로 변화된 사례가 많았으며 사전의 ‘낮거나 중간 범주’에서 사후 ‘높은 범주’로 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부모나 형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수록 자기와 그 인물상을 가깝게 배치시킨다는 연구결과(강민정, 2004; 권태은, 2005; Kuethe, 1964)와 일치한다.

둘째,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어머니의 자아분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아분화 검사 결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가족투사 영역과 가족퇴행 영역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실험집단 어머니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후 어머니가 부부간의 갈등, 긴장 등을 자녀에게 투사시키는 가족투사의 정도가 감소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어머니의 정서강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구성원들의 위기나 갈등 등을 대처해 나가는 행동양식으로의 가족퇴행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밀착된 부모-자녀 관계, 또는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자아분화를 포함하여 심리적 성숙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국내의 연구결과(박유화, 2001; 심혜숙·신영규, 1994; 안양자, 1998; 이운기, 2005; 이장주, 2002; 전귀연, 1993)와 유사하다.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어머니의 대인관계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인관계 지각 검사 결과,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대인관계 지각의 하위영역 중 대인애착회피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실험집단 어머니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후 회피적인 애착정도가 낮아졌다. 애착문제유아 어머니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회피적인 애착정도가 낮아졌으며 도움 받는 것의 두려움이 줄어들고,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서 예전보다 적게 회피하게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임수진, 2007). 실험집단 어머니의 가족기능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놀이치료에서 실험집단 어머니들이 사전, 사후 모두 가족기능에 대한 평정을 낮게 하였다는 연구결과(이승희, 2006)와 일치한다.

셋째,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상호작용 행동 검사 결과, 프로그램 실시 후 유아-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은 차원, 주제별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즉 차원별 상호작용 행동(구조, 도전, 개입, 양육)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 주제별 상호작용 행동(유아, 어머니, 2인 쌍)에 따라서도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이는 유아와 어머니가 서로 영향을 상호적으로 주고받으며 애착관계가 발달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연구결과(최순옥, 2006; Thoman, 1975)와 유사하다. 프로그램 과정 중 유아-어머니 주제별 상호작용 행동(유아, 어머니, 유아-어머니 2인 쌍)도 의미 있게 점수 상승을 보여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애착장애 유아의 어머니들이 치료 후 언어적 상호작용, 정감 있게 칭찬하는 반응이 증가한다는 이경숙(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집단발달 단계별, 유아와 어머니의 변화과정을 치료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집단 유아의 경우 전환, 실행, 종결단계에서 치료요인이 집단응집력, 사회화 기술, 정화의 세 요인만이 파악되었는데 이는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치료적 변화를 가져오는 집단의 힘인 치료요인 13개 항목이 나오기에는 유아의 연령이 만 4~5세로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실험집단 어머니의 경우 초기단계인 모 정서 강화 프로그램, 전환, 실행, 종결단계의 인형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의 변화과정 중 치료요인들(집단응집력, 보편성, 자기이해, 희망의 고취, 사회화 기술의 발달)이 단계별로 골고루 나왔다. 집단발달 단계가 진행될수록 희망의 고취, 실존적 요인들이

드러났으며 집단의 응집력이 강해졌다. 유아-어머니가 함께 참여하는 전환단계, 실행단계에서 위축되었던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면서 건강한 지지 집단으로 자리 잡아가게 되었으며 인형놀이를 통해 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사회화 기술의 발달이 보였다. 종결 단계에서는 집단원들의 자발적인 배려 및 지속적인 모임을 위한 사전 모임체를 결성하는 등 결속력이 다져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애착문제 유아 자신의 정서/행동 및 가족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애착문제 유아 어머니의 자아, 대인관계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애착문제 유아 가족의 상호작용 행동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인형을 이용한 가족놀이치료의 효과성을 유아, 어머니, 그리고 유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본 바, 인형을 이용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애착문제 유아 가족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며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애착문제 유아 가족으로 언급되었고 다른 가족들은 다 참여했지만 애착문제 유아 아버지들의 경우 총 12회기 중 두 번만 참여하였다.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단시간 내에 미친다는 선행연구(최경순, 1992; Lamb, 1981) 결과는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한 치료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애착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테디베어 곰의 소풍(TBP) 검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형 TBP로 수정 후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준거집단 타당도를 실시하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구성 타당도 및 동시 변별 타당도를 실시, 척도의 효율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애착문제 유아 가족에 관한 연구들은 대상 선정 시 주로 애착문제 유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 가진 장점이나 탄력성을 적용하여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점과 프로그램 구성 시 어머니-유아 대상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한 점이 의미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 측면에서, 본 프로그램은 애착문제 유아 어머니를 고려한 모 정서 강화 프로그램(부모교육·모 정서지지)과 애착문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형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및 추후 어머니 지지집단 모임으로 구성하였다. 모 정서강화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측면, 심리치료적인 측면이 함께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부모교육 강좌를 통한 육아정보 제공 및 공유, 어머니의 정서 표출을 통하여 내면의 안정감을 가지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형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의 인형놀이 활동을 애착문제 유아 가족 구성원들이 유아와 함께 경험하면서 애착문제 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프로그램 종결 후 어머니들의 정기적인 지지모임 운영과 애착문제 유아들을 위한 추후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가족의 적응을 돕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적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 개발 측면에서 인형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애착문제를 가지고 있는 유아 가족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예술 매체와 인형 매체를 접목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문제 가족 집단의 특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예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예비프로그램 실시 후 가족놀이치료

전문가의 의견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한 후 실제 애착문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 반영하여 통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뉴얼화 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 어머니, 유아-어머니 대상의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시 유아의 경우 직접 측정하는 방법보다는 부모나 교사의 성인 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행동 표현 및 가족지각에 대한 측정 시 유아본인 대상으로 TBP, FAST 검사, 관찰, 면접 등 측정도구를 사용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민정(2004). 장애아의 형제를 위한 집단놀이치료가 심리사회적 적응과 가족응집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태은(2005). 모래놀이치료가 형제관계에 미치는 변화 사례연구 -의사소통 모래상자 중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2004).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숙(2006). 재혼가정에 대한 단기가족놀이치료의 적용 사례.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1**(3), 311-325.
- 박랑규(1999). 자폐 영·유아와 부모의 사회적 상호작용 발달을 위한 가족훈련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명화(2005). 모 애착 강화 프로그램이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의 발달 및 병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정서·행동 장애 연구**, **21**(1), 193-211.
- 박유화(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적응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우현(2006). 학습장애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가족놀이치료의 효과성 사례 연구. **아동교육**, **16**(1), 201-212.
- 선우현(2007). 가족놀이치료가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 연구**, **23**(4), 197-216.
- 성영혜(2004). 치료놀이를 통한 모-아 상호작용 증진 효과- MIM을 이용한 효과검증. **열린 유아교육**, **9**(4).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혜숙·신영규(1994). 가족체계 유형과 자아분화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 89-103.
- 송영혜·서귀남(2002). 구조화된 부모-아동 상호작용 평가 모형. **놀이치료연구**, **6**(1), 45-58.
- 안양자(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복례(2003). 애착문제/장애아동 어머니와 비임상 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 내적 실행모델

- 차이에 관한 연구: AAI.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1997). 애착장애 아동의 특성과 부모-아동 관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숙(2008). 관계적 평가. 2008년도 제 1차 춘계 학술대회 영유아 -아동 정신건강의 임상적 평가. **한국 영유아·아동 정신건강 학회**, 13-25.
- 이경숙·강인선·신의진(2004). 애착장애/문제 아동과 형제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 실행 모델- WMCI (The Working Model of Child Interview)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97-98.
- 이승희(2006). 경험적 가족놀이치료가 아동의 주의력 결핍과잉행동과 가족기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운기(2005). 자아분화와 우리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애(2004). 미술치료가 불안정애착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자기 통제능력 및 상호작용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예미술치료연구**, **10(1)**, 93-115.
- 이장주(2002). 부자유친성정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후경(2001). 집단정신치료의 치유기전. **임상예술학회지**, **12**, 163-175.
- 임수진(2007). 성인애착이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공변량 구조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미자(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16(1)**, 80-97.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2006).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조인스 닷컴(2009). ‘정서장애 아동 조사 치료 모범 보인 고양시’, 2009. 3. 4일자, <http://www.joins.com>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순옥(2005). 가정폭력피해가족을 위한 가족치료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희(2006). 부모교육으로서의 부모놀이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7(5)**, 1-17.
- 최은아·김미정(2006). 애착문제아동을 위한 중재연구 경향 분석. **놀이치료연구**, **10(2)**, 141-160.
- 채진영(2009). 아버지의 애착표상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표상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thanasiou, M. S., & Gunning, M. P. (1999). Final therapy: Effects on two children's behavior and mothers' stress. *Psychological Report*, 84, 587-590.
- Baggerly, J., & Exum, H. A. (2008). Counseling Children After Natural Disasters: Guidance for Family Therapis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6, 79-93,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G.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II: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Gehring, T. (1993). Family System Test(FAST). Seattle: Hogrefe & Huber Publisher.
- Gendler, M. (1986). Group puppetry with school-age children" Rationale. procedure and therapeutic implication. *Arts in psychotherapy*, 13(1), 45-52.
- Gla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 change(2nd ed.)*. Scott: Foresman & Company.
- Karen Gitlin-Weiner., Alice Sandgrund., & Charles Schaefer. (2004). *Play Diagnosis and Assessment*. 송영혜 외 역(2004). 놀이진단 및 평가. 서울 : 시그마프레스.
- Kuehne, J. L. (1964). The pervasive influence of social schemata.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8, 248-254.
- Lamb, M. E. (1981).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 An integrative overview.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pp.1-70)*. 김광웅 · 박성연 역 (1994). 아버지 역할과 아동발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yons-Ruth, K., Alpern, L., & Repacholi, B. (1993). Disorganized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 and hostile-aggressive behavior in the preschool classroom. *Child Development*, 64, 572-585.
- Mckay, J. M., Pickens, J., & Stewart, A. L. (1996). Invented and observed in parent-child interactions. *Current psychology : Development · Learning · Personality · Social ball*, 15(3), 932-940.
- Mueller, N. (1996). The Teddy Bears' Picnic : Four-year-old children's personal constructs in relation to behavioural problems and to teacher global concer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 381-389.
- Noller, P., Seth-Smith, M., Bouma, R., & Schweitzer, R. (1992). Parent and adolescent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a comparison of clinic and nonclinic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ce*, 15, 101-114.
- O'Connor, K. J., & Braverman, L. M. (1997). *Pla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송영혜 · 이승희 역(2000). 놀이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 시그마프레스.

- Randolph, E. M. (2000). *Manual for the Randolph attachment disorder questionnaire*, 3rd Ed. Evergreen, Co: The attachment Center press.
- Sheidlinger, S. (1974). On the concept of the “mother group”. *International Journal Group Psychotherapy* 24, 417-428.
- Solomon, J., & Gorge, C. (1999). The measurement of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childhoo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pp.287-316). New York, NY: Guildford Press.
- Thoman, E. B. (1975). Mother-infant adaptation: The first five weeks. paper presented at the perinatal nursing conference, Battelle seattle Research Center, Seattle.
- Tyson, R. L., Emde, R. N., Gulenson, E., & Osofsk, J. D. (1985). *The origins and fates of psychopathology in infancy: a panel discussion*. In J. D. Call, E. Galenson & R. L. Tyson(Eds.), *Frontiers of infant psychiatry: Vol.2*(pp 480-489). New York: Basic Books.
- Yalom, I. D.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최해림 · 장성숙 역 (2001).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애착문제 유아 가족을 중심으로

김 영 주(울산대 교수)

이 연구는 아동의 애착문제가 주목하고, 이를 아동의 문제 뿐 아니라 부모와 가정의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부모와 가족 등 주변인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애착문제를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및 어머니의 특성까지 연관시켜 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가족 기능도 하나의 변인으로 다루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또한 문제 아동이나 문제 가족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주목하고 인형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는 것도 이 연구의 창의적인 접근법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연구의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함으로써 평소 아동 및 가족상담과 치료에 관심이 많으나 지식은 일천한 토론자의 호기심을 채우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가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놀이치료의 효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제집단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놀이치료를 행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결과에서 통제집단에서도 유아의 정서나 표현차이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하다. 셋째, 인형을 이용한 애착증진 가족놀이 치료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 발달단계별 유아와 어머니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Yalom(1995)의 치료요인을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연구도구 및 절차에 나타나 있지 않다. 변화과정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구 방법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상담이나 치료를 하는 아동가족관련 연구자들이 평소 아동과 가족의 문제 해결에 쏟는 노력과 애정만큼 그 결과를 과학적 논문으로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을 주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상담과 치료를 논문으로 제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아동가족 연구 분야의 지평을 확장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집단놀이치료의 형식이긴 하지만 이 연구 형식을 기초로 하여 개별 아동의 치료 사례연구도 논문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개인을 단위로 하던 집단을 단위로 하던 어떤 치료 사례를 논문으로 제시할 때, 모든 과학적 논문이 그러하듯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이 단지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차원에서 이 논문에 질적 연구의 형식을 일부 차용하여 각 사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제시하였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동의 애착문제에 주목하고 실천적 개입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장차 이 연구와 같이 다양한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문제, 가족관계 내의 문제를 조망하는 관점을 더 많은 연구자들이 공유하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